

기술 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가 함께 하겠습니다!



이 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보도자료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

• 문의 ·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2-388-0221), 정민규 책임(0222)

###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'세종시대' 연다

- 5월 3일부터 업무 시작,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포부 밝혀 -

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일한 R&D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5월 3일부터 세종 신청사에 새동지를 트고 업무를 시작한다.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은 기술혁신(R&D) 및 스마트공장 보급·고도화 지원을 통해, '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중점 지원하는 준정부기관'으로, 올해로 19년째 중소벤처기업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.

TIPA 신청사는 세종시 4-2생활권 집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 지하 1층, 지상 7층으로 업무공간과 평가공간으로 구성돼있다.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전이 진행되며, 입주 규모는 TIPA 본원 직원 200여명과 2019년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직원 48명 등 약 260명 규모다.

그동안 부족했던 업무공간과 기업 평가 공간 등의 확충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중소벤처기업 대상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.

또한, TIPA 인근에 먼저 자리 잡은 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과의 교류·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.

그간 TIPA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'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'에 앞장서왔다.

올해 기준 TIPA가 전담하는 전체 예산은 약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담당하고 있으며, 최근 3년간 인력 규모가 약 40%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.

TIPA 이재홍 원장은 "세종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TIPA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이다."라며, "앞으로도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을 발굴해 생태계적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에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이어 "국민으로부터 △신뢰받고 소통을 중시하는 TIPA, △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TIPA, △외부와의 협력 브릿지 역할을 통해 상생·협력·발전하는 TIPA, △업무 전문성을 키우고, 공정성을 실천하는 TIPA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."고 덧붙였다.